

광주 2억이상 체납 96명 봉선·쌍촌동 거주 최다

지난해 기준 광주에 거주하는 2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96명(개인 기준)으로 체납액은 모두 671억2천8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장 많은 동네는 광주에서 부촌(富村)으로 소문난 남구 봉선동과 서구 쌍촌동 등으로 확인됐다.

12일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구로 22억4천400만원(체납자 2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9명(1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도·소매업 18명(18.75%) ▲제조업·서비스업 각각 12명(12.5%) ▲부동산업 9명(9.38%) ▲음식업 6명(6.25%) ▲운수업 3명(3.13%) ▲무직·보건업 각각 2명(2.08%) 등의 순이었다.

이번 통계는 정부가 2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국제청 '지도 검색' 기능을 토대로 파악한 것으로, 이 홈페이지에선 체납자들의 체납 요지와 명단·직업(업종)·체납액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총 체납액 671억2천여만원...건설업 19명으로 가장 많아
국제청 '지도 검색' 통해 명단·직업 등 한눈에 확인 가능

이어 ▲남구 172억500만원(체납자 19명) ▲북구 139억7천100만원(29명) ▲광산구 118억3천400만원(20명) ▲동구 18억7천400만원(5명) 등의 순이었다.

각 구별 최고 체납액은 ▲동구 5억5천300만원(회사원) ▲서구 93억3천900만원(서비스업) ▲남구 34억400만원(부동산업) ▲북구 11억7천만원(소매업) ▲광산구 16억4천200만원(건설업) 등이다.

이중 최고액 체납자는 서구 쌍촌동에 사는 A씨로 광주 전체 체납액의 13.91%를 차지했다.

체납자가 가장 많은 동네는 서구 쌍촌동(5명), 남구 봉선동(5명)·월산동(5명), 북구 용봉동(5명)·신안동(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측은 "공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명단을 빠르게, 상세하게, 시민들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미국의 경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장이 발부되면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고 있다. 국제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처럼 시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이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행기자



한산한 선별진료소 광주에서 80여일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12일 오전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안내모니터에 대기인원수가 1명으로 표기되는 등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애리기자

코로나 확산세 주춤...당국 "위험 상존"

전남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최대 99명까지 허용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광주는 80일 만에 한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으며 전남은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등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가을 행사철과 외국인 감염 등 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80일만(7월23일 이후)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중 4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났다. 1명은 경북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명은 광주 확진자의 가족이다. 다른 한 명은 광산구 소재 건설 현장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능동감시 중 증상이 나타나 확진됐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1명으로 ▲광산구 소재 건설현장 관련 4명 ▲직업소개소 행정명령 관련 1명 ▲타 시·도 확진자 관련 1명 ▲기확진자(해제 전 검사) 3명 ▲서구 공공기관 관

련 1명 ▲유증상 검사자 1명 등이었다.

전남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명(목포 9명, 해남 2명, 담양·무안 각각 1명)이 발생해 전남 3282-3284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모두 기확진자의 접촉자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6명 중 2명(전남 3285-3286번)은 식당을 운영하는 해남지역 확진자의 지인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지난달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허용'을 건의, 지난 11일 피로연이 가능하다는 정부 답변을 받았다. 허용 인원은 식사 제공 시 최대 49명(점주 완료자 33명 포함), 식

사 미제공 시 최대 99명이다.

그동안 피로연은 결혼식 행사의 일부임에도 사적모임 규정을 적용받았다. 결혼식장 제한이 199명인데 비해, 결혼식과 별도 개최하는 피로연은 8명까지만 허용돼 사실상 불가능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연휴가 끝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위험요인 있는 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증상 의심 시 즉시 진단검사, 잦은 환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실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승지·임후성기자

전남 지자체 7곳 독립유공자 보훈수당 전무

유족급여도 제각각...민형배 "상대적 박탈감 없어야"

전남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강진군,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등 7개 시·군은 독립유공자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이 12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전국 지자체 독립유공자 보훈수당 지원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독립유공자 본인

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전남은 광역자치단체 지급 없이 각 기초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랐다. 22개 자치구 중 여수시와 광양시가 월 10만원씩 지급해 가장 많았고, 장흥군과 신안군, 보성군이 월 3만원으로 가장 적게 지원했다.

독립유공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제각각이다. 광주는 유족에게 월 3만원씩을 지급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가 유족에게 월 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함평군, 영암군이 월 7만원, 목포시가 월 6만원, 장성군, 해남군, 완도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이 월 5만 원을 지급했다. 장흥군과 보성군, 신안군이 월 3만원으로 가장 적게 지급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전남도를 포함해 보훈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시·도는 부산,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경남도로 총 9곳이었다.

민형배 의원은 "보훈 관련 각종 수당 등이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금액과 대상이 제각각이다 보니, 유공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보훈처가 협의를 통해 격차 해소 및 전원 지급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文대통령 "대장동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대장동 의혹 첫 공식입장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제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청와대

참모가 아닌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이날 오전 이뤄졌다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과 그 파문이 날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제13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접수마감 10.29

도착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 인정

THE 13TH KJ DAILY PHOTO EXHIBITION

주최 광주매일신문, CE21 주관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후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공모 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 - 제한 없음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출품료 1인당 30,000원 (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미발표 작품으로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작품규격 컬러, 흑백 11"×14"(장정표)

출품수 4점 이내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 심호센터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062-234-2323

접수처 작품 뒷면에 명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반·학생)기재

심사일시 2021년 11월 3일(수)

심사장소 광주에총 제2전시실

심사표비 2021년 11월 5일(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및 지상 www.kjdaily.com

일반 공모 부문

- 대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200만원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부상 100만원
- 특선(입선10%이내)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 입선(출품수의 20%이내)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특별(학생) 부문

- 대상(2점) 광주광역시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전라남도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 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 특선(5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 입선(50점 내외)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초대작가상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상 부상 50만원

시상식 일시 및 장소

2021년 12월 8일(수) 오후2시 / 광주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다목적실(예정)

작품반송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단, 광주지역 출품자는 동우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함)

기타 사항

- 특전 초대작가 제도 운영 (본 대전에서 총 접수 15점 이상 취득한 자)
- 본 대전 입상자는 광주매일신문 사진동우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단, 입상경력 2회 이상)
- 입상, 입선작은 주최측에 귀속하여 협회 또는 지회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 입선작의 원본파일은 5일 이내에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 brcm@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취소됨)
- 수상작과 관련한 초상권 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을 지어 함.
- 초대작가 16"×20"액자 제출, 출품시(주소, 성명, 명제, 연락처, 기입요망)